



머리글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 / 살레시오회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만큼!

“뭘~ 그렇게 자꾸 열어!”

심심하면 사무실에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 재끼는 친구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속이나 그렇게 열어보고 살펴라!”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속이 늘 궁금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저의 어릴 때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말이죠!

냉장고를 열면 웬지 배부르고 넉넉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답답한 마음도 시원한 냉장고 바람에 “뽕!” 뚫렸는지 그리도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조금 철이 들고 나서야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었습니다. “엄마 속이나 그렇게 열어보고 살펴라!”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신앙의 어머니 성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한 달 그렇게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나가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집안에서도 담을 쌓고 보이지 않는 벽과 문에 가로막혀, 서로를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못하게 살펴본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코로나19로 갇혀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이나마 느끼고 체험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갇혀 있는 이들, 새롭게 삶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빛의 사람들 가족이(후원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곁을 묵묵히 함께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회개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 곁을 지키며 걸어가는 빛의 사람들 가족이(후원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만큼 딱! 그 만큼만이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살피는 5월이 되도록 성모님 마음을 본받는 빛의 사람들 가족이(후원자님들이) 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최경애 율리아나_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대표봉사자

저는 한 자매의 권유로 교정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도소 문을 들어섰을 때 거대한 문이 ‘쿵’하고 닫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겁먹고 들어선 그곳에는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는 또 다른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당연히 ‘밀’이라고 스스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밀’인가 싶으면 ‘가라지’가 되어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밀과 가라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라지인 그대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런 저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안에 계신 분들도 상처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 치유 받고 기쁨과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고춧가루 같다고 했습니다. 고추를 심고 정성으로 가꾸고 하나하나 따서 햇볕에 말리고 더 바짝 말려 뽕아져서 가루가 되어야만 비로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저의 신앙은 어느 단계쯤 왔을까요? 그래도 교정 봉사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봉사하며 기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부님께서 나누어 주신 교재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을 때 이름 대신 모두 수용자 번호를 쓰던 생경한 모습, 분류심사원에서 여자아이가 면회 왔다고 불러가는 친구를 부럽다고 말하며 눈을 떼지 못하던 모습, 집회 때 복음성가와 가요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형제님.

그런데도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맞나’하고 회의가 들 때쯤 피정 중에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사참례만 함께 하여도 그분들은 함께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들것을 내려보내는 적극적 봉사가 아니더라도 중풍 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질파와 빌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질파는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몸종, 빌하는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는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라반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창세 29,23-24).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창세 29,28-29).

성서 본문을 보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딸을 전해주는 것과 병행하여, 자신의 여종을 “딸”에게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즉 질파와 빌하는 레아와 라헬의 종이지, 야곱의 아내나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질파와 빌하의 처지가 레아와 라헬의 아이 갖기 경쟁으로 인하여 바뀌게 됩니다.

이 둘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레아의 첫째 아들은 엄마에게 임신 촉진제로 쓰이는 “합환채”를 가져옵니다. 세상애나! 엄마에게 임신촉진제를 가져오는 아들이란! 레아와 라헬이 임신문제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미 네 명의 자식을 가진 레아를 시샘하며,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창세 30,4). 그러자 레아 역시 자신의 몸종 질파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창세 30,9).

이런 경쟁으로 질파와 빌하는 몸종의 처지에서 “아내”가 되었지만, 짐작할 수 있듯이, 레아와 라헬과 동등한 관계는 되지 못했습니다. 빌하가 낳은 아이 둘의 이름을 라헬이 짓고, 질파가 아이 둘을 낳자 레아가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레아와 라헬이 지었다는 것은, 양육 역시 레아와 라헬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을 보는 질파와 빌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질파와 빌하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레아와 라헬에게서 나온 아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거나 했을까요? 성서에서는 이미 네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질파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받은 레아가 다시 아이를 낳을 때 다섯 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몸종이 낳은 아이를 해아리지도 않습니다. 이 다섯 번째 아들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준 값”을 돌려받았다고 말합니다(창세 30, 17-18). 레아만 그러한가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빌하가 아이를 낳자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며 환호하던 라헬은, 자신이 요셉을 낳자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라고 합니다. 빌하의 자식을 진정으로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는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질파와 빌하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이의 몸종이었던 하가르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사라이를 임신여기기도 하고, 또 사라이의 구박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며, 천사에게 하소연하면서 대화도 나누었던만(창세 16,4-14 참조), 성서 속에서 질파와 빌하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머무르던 고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회의를 합니다. 이때 레아와 라헬만 부릅니다(창세 31,4). 지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자신과 반목하던 형 에사우가 장정 사백 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창세 32,9)라고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맨 앞에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창세 33,2) 세웠다고 쓰여 있습니다.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죽어도 좋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헬이 죽자, 라헬의 몸종 빌하는 레아의 아들 르우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창세 35,22). 자신의 자매가 다른 고장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고장의 성읍들을 모조리 죽이고 약탈한 것(창세 34,1-31)에 비해, 빌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무어라 하지 않고, 그저 훗날 축복을 할 때, 살짝 언급할 뿐입니다(창세 49,4). 빌하의 아들들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빌하는 울지조차 못합니다.

강대국들의 세력경쟁으로 일어나는 많은 전쟁, 그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니, 비단 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이념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죽고 고통받았는지요.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만을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경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지, 다른 이웃집과 비교하면서 괜한 경쟁심으로 아이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겠습니다.



동업

22기 창업 대출자 김OO 마리아막달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 손을 잡아 주신 유일한 분이시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자본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는 사람들과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위로할 수 있는 일... 책을 만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으로 펴내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책에 담아 서로 나누며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일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몇 권의 책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이익을 낼 수 있겠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든든한 동업자 덕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비어 있겠습니다. 채우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생명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땐 제 안에 사랑을 채우십니다.
저를 통해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땐 제 안에 위로를 채우십니다.
평화가 필요할 땐 평화를, 기쁨이 필요할 땐 기쁨을,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저는 그저 비어 있겠습니다.
당신의 부으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든든한 동업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의 동업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익 배분 같은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동업자가 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일뿐입니다. 특별히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게 부서져 버린 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동업자, 나의 하느님을요.

+ 찬미 예수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

서신을 기쁘고, 감사하게 잘 받아보았습니다.

신부님의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 맡겨드리자”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요.

이곳에 있으면서, 특히나 할 수 없는 것에(대부분이지만)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의 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한 번씩 희망을 품다가도 또 한 번씩 절망에 빠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에 왈칵 눈물이 납니다.

이곳에서 정말 눈물이 많아졌어요. 가족 생각은 물론이고 작은 한 생각에도, 언감생심 신부님의 위로와 위안이 제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신부님!

언제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기를 바라며, 체념과 좌절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에서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유쾌하신 모습과 깊은 사랑의 눈길로 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저희의, 우리 모두의 사제로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 3. 31.

길OO 올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가 현대일 위원장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4월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교정시설의 모든 수용자에게 따뜻한 떡을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미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떡 전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3/13~4/12)

2020년 3월~4월에는 유우정 스테파노, 이승원 제라르도 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명숙 데레사 자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관련 사업 ●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소속인 타교구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의 구매와 작은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정사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구



- ▶ 느릅나무알로에로션 (250ml) ₩10,000 / 코코느릅알로에로션 (250ml) ₩11,000
- * 아토피, 피부 가려움, 피부 건조증 여드름 완화 효과
- * 항균효과-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
- * 코코느릅알로에로션은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여 지속성 강화
- * 성분 : 알로에, 느릅나무, 글리세린, 라벤더 오일 / 코코넛 오일

▶ 수제 생강청, 레몬생강청 (350ml) ₩13,000 (원산지: 제주 애월)

- *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비타민C 첨가) * 혈액 순환 및 수족 냉증 개선(찬 기운을 몰아냄)
- *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콜레스테롤 배출) * 성분 : 생강, 꿀설탕, 계피 / 레몬, 생강, 설탕



▶ 천연치약 (100g) ₩10,000

- * 미뢰세포(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를 건강하게 함 * 입안에 보습을 주어 침샘이 마르지 않음
- * 잇몸건강, 면역증강, 구내염, 황산화, 항균, 시린 이, 입 냄새 제거
- * 성분 : 천연 글리세린, 천연 계면활성제, 죽염, 녹차분말 등



※ 구입문의: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042)635-1115 / 5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수익금은 전액 대전, 천안, 공주, 홍성교도소 법무병원 수용자, 출소자,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 ▶ 수제롤케이크 ₩10,000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수제파운드케이크 ₩5,000
- ▶ 수제우유식빵 ₩4,000
- ▶ 흑미식빵 ₩5,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수제찰보리빵 20개 ₩10,000

※ 구입문의: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안동교구

- ▶ 사과즙 1SET(2BOX) ₩50,000
- ▶ 힐데자연치약 (가루형) ₩10,000
- (튜브형) ₩12,000

※ (치약은 최소 3개 주문) 택배비 포함 금액입니다.

※ 구입문의: 안동교구 교정사목 054)874-2396

※ 계좌번호: 농협 737-01-082846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수익금은 전액 안동교구 교정사목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 교정사목에서 출소자들의 자활기관으로 운영하는 파스카 두부공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렵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대구은행 065-05-703110-001 예금주: 파스카교화복지회